Bulletin of Food Technology
Vol.26, No.1, pp. 50–55

횡성 농식품기업의 농·상·공 연계 모델[1)]

The Construction of the Connection plan in Agriculture, Commerce and Industry for Model of the Hoengseong food companies

박진서 | (주)정앤서컨설팅
Park JinSeo | JEONGANSWER Consulting CO., Ltd

전 세계적으로 반복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소비 형태도 양극화되고, 식품 소비 패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영세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지역의 농산물가공 산업을 지원하면서 지역별로 생산되는 제품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횡성군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농산물가공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원료조달·제조 가공·유통채널과의 연계를 촉진시켜 지역농업인, 공업인, 상업인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지역 특성에 맞도록 농업인, 공업인, 상업인의 유기적 연대를 구성하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잘 팔리는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한 사례로 타 지역 식품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농·상·공 연대의 개념

농 · 상 · 공 연대는 농림업자와 중소기업자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을 전개하여, 농림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의 경영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는 농업이 가지는 특장점과 상공인이 가지는 특장점 결합을 통한 신 시장, 신 사업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농 · 상 · 공 연대는 농업인이 보다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상업인 및 공업인 등과 함께 상호 상생을 목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 유지하는 지속가능한 네트워킹이라 개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Fig. 1).

1) 횡성군에서 발주한 용역의 결과로 횡성군이 기재를 허락하였다.

농·상·공 연대의 중요성

우수 농산물을 확보하고 이를 다양한 제품으로 개발하여 농산물의 가치 증대를 이루는 과정에서 농업인들의 전문성 향상은 중요한 요소로 농업인들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는 경쟁력 있는 제품개발을 위한 원천이 되는 우수 농산물의 확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의 과정에서 농업인, 상업인, 공업인들이 가진 역량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들의 장점을 극대화함으로써 효율적인 농 · 상 · 공 연계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며, 이를 기반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제품 확보를 이룰 수 있다.

기존 농업의 기능 확장 측면이 강조된 복합 6차 산업 및 클러스터 사업은 방법론적 개념이 강해 이를 추진하는 주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농 · 상 · 공 연계는 사업 주체들을 중심으로 한 모델로서 실제 사업으로 연계가 용이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우수 농산물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조 및 마케팅 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면 국내 시장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의 활발한 진출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핵심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

농·상·공 연대 사례

자생적으로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 기업, 지자체, 영농조합법인 등이 연계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농 · 상 · 공 연대가 전개되고 있으며 이들 사례는 총 6가지 형태로 유형화할 수 있다(Table 1).

농·상·공 연대를 위한 전략적 체크 포인트

첫째로 사업추진 목적에 따라 사업파트너의 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농 · 상 · 공 연대의 이유가

Fig. 1. The concept of the Connection plan in Agriculture, Commerce and Industry (농식품 비즈니스 고도화를 위한 농·상·공 연계방안, 농촌진흥청, 2011)

소비처 확보, 사업 다각화 등 인지를 명확화 해야 하며, 둘째로 사업파트너 탐색과 선정과정이 중요한데 농 · 상 · 공 연대 사업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파트너 선택 시 윤리성과 사업 정체성 부분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다.

셋째, 농 · 상 · 공 연대는 수익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발생된 수익을 신규 사업에 투자할 수 있어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할 수 있으며, 농 · 상 · 공 연대도 수익을 내야하는 비즈니스이므로 시장성 · 경제성 · 사업추진 여건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 및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장기적 관점에서 소비자의 신뢰는 단기간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으므로, 농 · 상 · 공 연대를 통해 소비자 만족과 신뢰를 얻는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농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상공인과 논의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농 · 상 · 공 모델 구축 프로세스에 농업인이 참여함으로써 사업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지역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횡성 "유통제휴형 모델" 개요 및 목적

소규모 농산물가공기업이 산재한 횡성 농산물가공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통바이어가 원하는 제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횡성군농업기술센터가 유통제휴형 모델의 리더 조직으로 역할을 확대하여 유통 기업 및 유통바이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리한다. 특히 유통 바이어와 함께 주기적으로 시장진입 단계에서 새로운 제품을 기획하고 제품을 생산 · 유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 연계 및 운영시스템을 확보한다.

Table 1. The Construction of the Connection plan in Agriculture, Commerce and Industry for Model (신시장·신사업 창출의 농·상·공 연대 사례집, 농촌진흥청, 2011)

번호	유형별 구분	연계	연계내용
1	유통제휴형	유통대기업연계	양구산채비빔밥–(주)GS리테일 의성마늘–(주)롯데햄
2	외식제휴형	외식기업연계	횡성연잎–(주)놀부 평택쌀–(주)스타벅스
3	부가가치기술개발 및 소재개발형	중소기업 및 기술집약기업과 연계	문경오미자–(주)광동제약 경기선인장–(주)배다리수도가 부안뽕–(주)동진 철원오대쌀–(주)백제물산
4	지산지소형	관내 중소기업 및 상공인과의 연계	평창메밀–관내가공기업 담양농산물–(주)강동오케익 파주장단콩–관내외식기업
5	문화마케팅형	식품기업 연계	화천토마토–(주)오뚜기
6	공동사업형	중견기업연계	고창복분자–(주)국순당 정선막걸리–(주)국순당

횡성 유통제휴형 모델 개발은 목적은 유통 바이어가 원하는 제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으며, 유통 바이어 및 유통 채널 DB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유통 바이어와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횡성군 농산물가공기업의 상품개발능력 향상이 필요한데 횡성농업기술센터는 유통 제휴형 모델의 지속화를 위해 유통 채널과의 연계협력을 추진하여 유통채널 및 유통 바이어 DB 확보하여야 한다.

확보된 유통 채널 및 유통 바이어 DB를 횡성군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관리하게 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농공상유통회의를 주도하여 사업의 연속성 확보에 한다.

유통 기업 및 바이어와의 연계협력에서 중요한 부분은 유통에서 원하는 홍보 및 공동 판촉활동 비용의 공동 부담으로 시제품개발, 포스터 제작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Fig. 2).

가공기업은 생산자를 대표하여 유통 바이어를 접촉하고 관리하면서 소비 트렌드 등 시장의 정보를 즉각 사업 및 상품 개발에 반영하여야 한다.

모델 적용 방향적 측면에서 농 · 공 · 상 유통회의를 통해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확보하여야 하며 믿을 수 있는 지역농산물을 원료로 활용한다는 점을 유통 채널 및 바이어에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유통 바이어와의 공동 작업을 통해 프리미엄 제품과 칩 시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품 기획의 노하우 확보가 가능하며, 농 · 공 · 상 융합모델 구축에 지역 내 외식기업 등의 참여를 개방함으로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사업대상 유통기업 선정 기준

사업대상 유통기업 선정 기준으로 첫번째는 소규모 생산제품이 유통가능한 기업으로 종업인 10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인 횡성 농산물가공기업의 규모에 적합한 유통기업 선정이 중요하며, 두번째로 오프라인 매장 이외에 소셜커머스, 홈쇼핑 등 타 유통채널을 보유하고 있어 대규모 유통채널 진입이 가능한 유통기업 선정이 중요하며, 세번째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어 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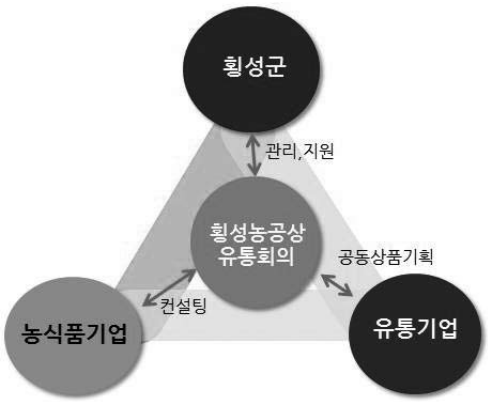

Fig. 2. Propulsion system of the typedistribution partnership model (횡성군 농·공·상 융합모델 구축용역, 횡성군, 2012)

의 농산물가공기업이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하여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보유한 유통 기업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과 동행할 수 있는 열린 사고를 가진 기업의 선정이 핵심이다.

농·공·상 융합모델 사업화 순서

횡성군 농 · 공 · 상 융합모델 사업화 순서는 1차 횡성농공상유통회의를 통해 협력네트워크 운영 방향 및 제1차 입점 제품품평회를 실시하였으며, 제2차로 농공상유통회의를 통해 입점 가능제품의 입점 조건과 공동기획 상품에 대한 개발 방향을 논의하였다.

제3차 농공상유통회의를 통해 입점 제품의 진행사항을 체크하고, 공동기획 상품의 상품성을 평가하여 입점 조건 등을 논의하며, 마지막 단계로 농 · 공 · 상 융합체계 구축방안으로 농공상유통회의 및 지자체와 유통 채널간 지역동행 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실시하였다(Fig. 3).

농·공·상 융합모델 사업화 결과 및 기대효과

횡성군은 국가대표급 야채상으로 불리는 이영석(총각네 야채가게) 대표가 운영하는 '㈜자연의 모든 것'과 손을 잡고 지역 농특산물 판매에 적극 나섰는데, 2012년 11월 26일 횡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농 · 공 · 상 융합모델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자연의 모든 것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횡성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가공한 제품들을 ㈜자연의 모든 것을 통해 유통하게 되는데 1단계로 에덴농장에서 생산된 벌꿀 제품을 납품키로 했으며 이후 횡성이 원조인 구름떡, 서리태 뻥 등도 차례로 추가 납품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횡성군은 이번 협약으로 고품질 가공 제품을 수도권에 유통할 수 있는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하게 됐으며, 양측은 앞으로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통해 지역 농식품 발전을 위한 상생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Fig.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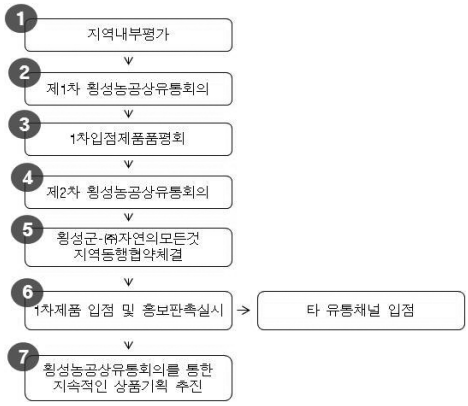

Fig. 3. Model development process (횡성군 농·공·상 융합모델 구축용역, 횡성군, 2012)

이번 농 · 공 · 상 융합모델 개발에 따른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내 농산물가공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 사례를 제공하였으며, 농 · 공 · 상 융합모델의 지속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매뉴얼 및 협력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횡성군 중 · 소규모 농산물가공기업의 주요 상품 특성을 분석하여 시장트렌드에 맞도록 상품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횡성군농업기술센터의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가공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통 채널과 연계한 상품 개발 모델을 제시하여 횡성농산물가공기업의 시장 진출 전략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타 지자체가 도시의 유통 기업이나 외식 기업 등과 연계 · 협력하여 그 지자체에 맞는 농 · 공 · 상 융합모델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참고문헌 ●

1. 서윤정, 농식품 비즈니스 고도화를 위한 농 · 상 · 공 연계방안, 농촌진흥청, 2011
2. 서윤정, 신시장 · 신사업 창출의 농 · 상 · 공 연대 사례집, 농촌진흥청, 2011
3. 김영인, 횡성지역 농특산물 수도권 유통망 확보, 연합뉴스, 2012. 11. 26
4. 박진서, 정지철, 서윤정, 농 · 공 · 상 융합모델 구축용역, 횡성군, 2012
5. 유학렬, 농 · 공 · 상 연대 활성화 협약, 강원일보, 2012. 11. 27

박 진 서 농학박사
소 속 : (주)정앤서컨설팅 기획이사
전문분야 : 농식품제품화 및 유통마케팅전략수립
E – mail : hapyjs@naver.com
T E L : 02–2625–0714

Fig. 4. Hoengseong county – all of nature Corp. is the work of signing ceremony (유학렬, 농·공·상 연대 활성화 협약, 강원일보, 2012. 11. 27)